[3] 태극, 음양, 오행

괘명 및 차례	건 (乾1)	태 (兌2)	이 (離3)	진 (震4)	손 (巽5)	감 (坎6)	간 (艮7)	곤 (坤8)
팔괘(3변)	☰	☱	☲	☳	☴	☵	☶	☷
사상(2변)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양의(1변)	⚊(양)				⚋(음)			
태극	☯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이 팔괘(八卦)를 낳는다. (주역, 계사전)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을 셋을 낳고
셋을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업고 양을 안으며
음양 두 기운으로써 조화를 이룬다. (도덕경 42장)

1. 태극(太極)

태극은 1이고, 음양은 2이다. 태극은 음양이라는 현상적 세계의 시원이다. 태극은 둘로 분화될 음양의 가능태이며 이미 음양을 머금고 있으되 음양처럼 분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발생학적 근원으로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가 분화된 이후의 현실태에도 고스란히 녹아든다. 또한 태극은 끝없이 분화하여 더 이상 분별할 수 없는 무극(無極)에 이르는데, 무극은 다시 태극의 모태가 된다.

따라서 태극은 하나이자 둘이고, 시작이자 끝이며, 동(動)하면서 정(靜)하고, 음인 동시에 양, 그리고 전체이면서 부분이 된다. 이러한 역설의 논리를 담고 있는 태극을 두고 주자는 "음양오행

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고 했고, 오초려는 "천지만물을 통괄하는 것"이라 했으며, 공영달은 "혼돈의 일기(一氣)라고 했다. 이런 논리는 공자의 <계사전>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로 음양오행 사상으로 이어져왔고, 나아가 중국사상에 보편적으로 내재해왔다.

2. 음양

음양의 조건	양(陽)	음(陰)
밝기	명(明)	암(暗)
온도	열(熱)	한(寒)
승강	상승(上昇)	하강(下降)
이합집산	발산(發散)	수렴(收斂)
천지	하늘	땅
하루	낮(晝)	밤(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방위	동, 남	북, 서
성별	남(男)	여(女)
오행	목(木), 화(火)	금(金), 수(水)
생멸	생장(生長)	소멸(消滅)
강도	강(强)	약(弱)
강유	강(剛)	유(柔)
속도	동(動)	정(靜)
크기	대(大)	소(小)
해와 달	해	달

교대의 원리

- 음과 양은 시간차에 따라 서로 교대한다.

교대의 원리는 우선 자연의 현상에서 발견된다. 주야의 교대, 뜨거운 계절과 추운 계절의 교대, 생성과 소멸의 교대. 이 원리가 인간에게도 반영되어 있다. 오매(寤寐)의 교대, 질병과 회복의 교대, 삶과 죽음의 교대 등이 그렇다. 또한 삶의 영역에서 시련과 극복도 교대된다.

자크 오디아르의 영화 <러스트 앤 본>. 다리를 잃은 조련사와 손가락이 골절된 복서. 여자는 두 다리를 잃었고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다르게 살 수는 있다. 수영을 하고 의족을 끼고 걷는 연습을 하고 섹스를 하고...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여자는 차츰 다른 삶을 체득해 간다. 거리 복서로 먹고 사는 남자. 호수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 주먹으로 얼음을 깨고 아들을 살린다. 손가락이 부러졌지만 다시 복서가 되어야 한다. 이젠 다른 신체다.

“편치를 날릴 때 마다 통증을 느낀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어느새 갑자기 그 고통이 살아난다. 깨진 유리조각처럼 찌르고 또 찌른다.”(영화중에서)

교대의 흔적은 남겨진다. 그것은 변화를 주저하게 하는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 앞에 놓인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정표에는 특정 방향이 지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어디로든 쉬지 않고 나아가되,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희망의 눈가림에 속지 않기를 환기하는 문구가 있을 뿐이다.

- 음과 양이 극(極)에 이르면 전환된다.

- 예측은 항상 빗나간다. 바닥이려니 하면 아직 멀었고,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전환된다.
- 복수의 전환들이 겹쳐지므로, 전환의 지점들은 생각보다 자주 온다.

- 교대의 중층성

‘교대’는 중층적으로 일어난다. 즉, 삶과 죽음이라는 큰 교대 안에서 수많은 미시적 생멸(生滅)의 교대들이 복수로 존재한다. 교대의 중층성 때문에 늘 음의 상황과 양의 상황이 겹쳐 있다. 키우는 힘을 써야 할 곳은 양이 일어나는 시작점이고, 양이 극에 이른 상황에서는 양기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음으로 내려가는 곳에서는 수렴의 지혜를 배워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함의의 원리

- 음 속의 양, 양 속의 음
- 내부의 내부는 외부다. 소포체와 GI 트랙
- 내 안의 타자, 자연 – 미토콘드리아, 세균
- 소우주론과 생성의 가능성
- 태극을 함의하고 있음

함의의 원리는 태극의 본성을 따른다. 태극의 이치에 따라 통념적 사고로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양태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다.

몸의 공간적 의미의 음양

	양	음
몸의 앞뒤(임독맥)	등(背)	배(腹)
몸의 앞뒤(精氣)	배(腹)	등(背)
장부	부(腑)	장(臟)
표리	표(表)	리(裏)
상하초	상초(上焦)	하초(下焦)

삼초장부배속	심폐(心肺)	간신(肝腎)
오행장부배속	심간(心肝)	폐신(肺腎)
삼음삼양	태양,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궐음

- 부(腑)는 내보내고 소통시키므로 양이이고, 장(臟)은 저장하고 거두므로 음이다.
- 대체로 표(表)에서 일어난 병은 양적이고, 리(裏)로 들어간 병은 음적이다.[1)]

- 상초(上焦)와 하초(下焦)

상초(양)	인후 ~ 횡격막	심, 폐
중초	횡격막 ~ 배꼽	비
하초(음)	배꼽 ~ 전음, 후음	간, 신

몸의 시간적 의미의 음양

- 몸은 자연의 시간에 대응한다. 사계절에 따른 양생법. 하루의 양생법
- 자오유주법(子午流注法)
- 양인과 음인의 시간
- 시간의 흐름은 기존의 몸으로부터 새로운 몸으로 차이를 만들어가는 것.

음양의 한의학적 진단과 처방의 응용

① 진단적 측면
- 팔강(변증)

양	표(表)	열(熱)	실(實)
음	리(裏)	한(寒)	허(虛)

음양허실 : 양허, 음허, 양실, 음실
나이, 성격, 음성, 손, 얼굴 형태, 골격과 근육, 눈빛

② 치료적 측면
본초 : 양적 약물, 음적 약물, 기미론(氣味論)
방제 : 보법(補法)과 사법(瀉法)

1) 유행성 감염이나 외적 자극 등으로 발생하는 외감성 질환은 양의 위치(표)에서 받아들여서 육부로 유입되고, 나쁜 식습관, 부적절한 생활, 스트레스, 과도한 성생활 등에 의해 발생되는 내상(內傷)성 질환은 음의 위치(리)에서 받아들여서 오장으로 유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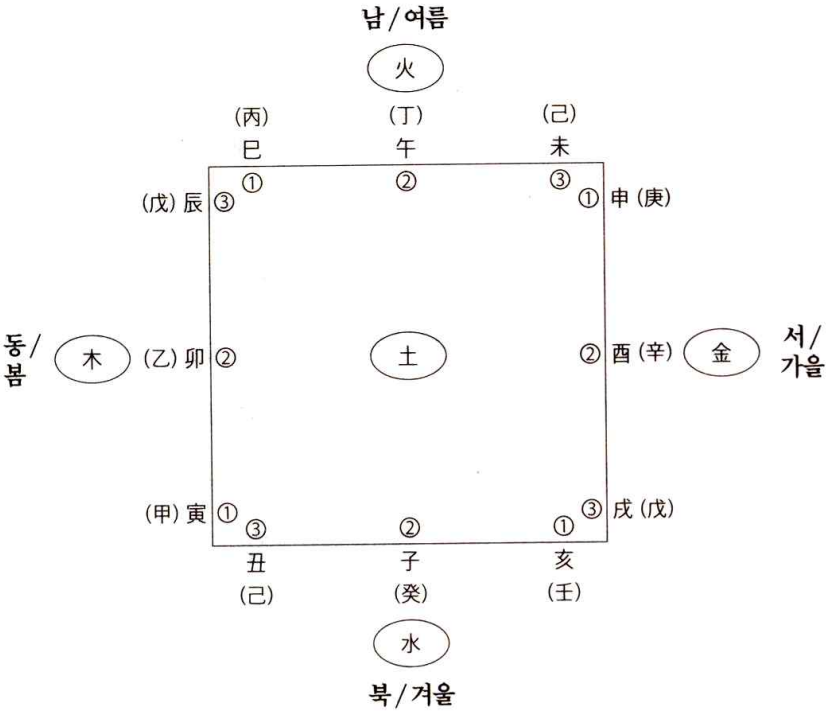
3. 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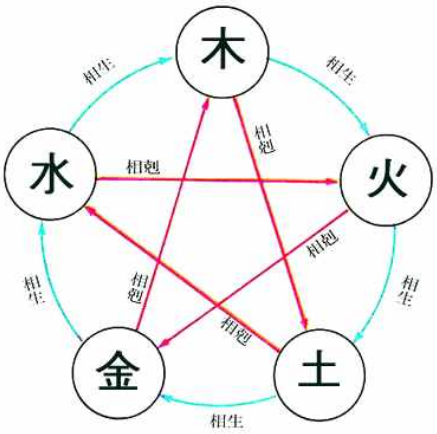
- 음양은 시간성을 상징하고, 오행은 음양의 시간을 공간에 구조화 시킨 것.[2)]
- 오행은 사상에서 하나가 더해져 생성되었다. 공간은 중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목화(木火)는 양에 속하고, 금수(金水)는 음에 속한다.
- 목화토금수 각각에도 음양이 있다.

오행五行	木	火	土	金	水
오장五臟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
육부六腑	담膽	소장小腸 / 삼초三焦	위胃	대장大腸	방광膀胱
정지情志	노怒	희喜	사思	우憂	공恐
육기六氣	풍風	서暑/火	습濕	조燥	한寒
오덕五德	인仁	예禮	신信	의義	지智
미味	산酸	고苦	감甘	신辛	함鹹
색色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
오계五季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방위方位	동東	남南	중앙	서西	북北
오관五官	눈(목目)	혀(설舌)	입(구口)	코(비鼻)	귀(이耳)
천간天干	갑을甲乙	병정丙丁	무기戊己	경신庚辛	임계壬癸
지지地支	인묘寅卯	사오巳午	진술축미 辰戌丑未	신유申酉	해자亥子
수數	3, 8	2,7	5, 10	4, 9	1, 6
조화	생生	장長	화化	수收	장藏
오음	각角	치徵	궁宮	상商	우羽
발음	ㄱ,ㅋ	ㄴ, ㄷ, ㄹ, ㅌ	ㅇ, ㅎ	ㅅ, ㅈ, ㅊ	ㅁ, ㅂ, ㅍ
특성	곡직曲直 발생 생장 승발升發	염상炎上 성장 무성 추진	稼穡가색 조화 매개	종혁從革 수렴 변혁 차가움 조절 정결	윤하潤下 자윤滋潤 하향下向 폐장閉藏 한량寒凉 침정沈靜

2) 그러므로 공간이란 반드시 시간을 전제한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구조화된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운명이라는 시간의 흐름 역시 항상 공간(장소)와 함께 생성된다.

오행의 두 가지 시스템 도해





- 사각형에서 오각형으로

- 탈중심과 오행의 수평적 관계[3)]
- 상생상극 시스템이 만들어짐
- 항해승제(亢害承制)

3) 오행의 오각형 형태는 '중심 토'라는 특이적 위상을 제거하되고, 시작도 끝도 없는 탈중심적이고 탈위계적인 관계, 즉 모든 오행이 수평적인 상생(도움)과 상극(길항)의 관계를 갖게 된다. 생극이 수평적인 국면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오행 요소가 이웃하는 두 항과 이웃하지 않는 두 항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성이 가능한 형태는 오각형뿐이다.

- 오행의 개념

오행은 사물과 현상을 다섯 가지로 나누는 시스템이다. 다섯이 된 연원을 음양의 분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계절로 예를 들어보자. 앞서 살폈듯이, 봄과 여름은 양이고, 가을, 겨울은 음이다. 봄여름은 모두 양이지만 이 둘을 또 다시 음양으로 구분해보면 봄은 양중의 음이고, 여름은 양중의 양이다. 이런 식으로 가을은 음중의 양이고 겨울은 음중의 음이 된다. 이렇게 음양을 각각 이분하면 4개의 국면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사상(四象)이라고 한다. 4개로 나눠진다 해도 봄과 여름의 양적 기운은 가을과 겨울의 음 기운과 구분된다. 봄여름은 상승과 생장의 방향성을 갖지만 가을겨울은 하향, 수렴 등으로 전환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이 두 기운을 매개하는 중간항이 등장하는데, 사상에 이 중간항을 합해서 오행이라 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오행의 발생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 사상은 사시(四時) 외에도 네 개의 방위, 즉 동서남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때는 네 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중심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중앙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더해 오행이 발생되었는데, 이 다섯 가지 각각의 이름을 '목, 화, 토, 금, 수'라 부른다.

위의 표를 통해서 목화토금수를 계절과 방위, 색, 온도 등의 자연의 보편적 이치를 통해 감각적으로 연결시켜보자. 목(木)은 '나무(木)-곡직(曲直)-봄-동쪽-청색-새싹-온-바람(風)-생(生)-인(仁)'(표의 순서대로)으로 계열화된다. 봄은 바람과 함께 찾아온다. 따뜻한 봄바람은 만물을 깨우며 새싹을 움트게 한다. 이 생동의 기운은 태양이 올라오는 동쪽의 이미지와 통한다. 이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자연물이 나무다. 나무는 곧게 때론 구불구불하게(곡직曲直) 가지를 뻗어내면서 성장한다. 나무 크기도 성장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가지에서 새싹을 띄어 새로운 푸른 잎을 생산하기도 한다. 이 탄력적인 성장의 동력이 봄과 동쪽의 기운과 연결된다. 덕목으로는 목을 인(仁)과 연결한다. 인의 덕은 생명을 기르는 봄의 기운과 닮았다. 이렇게 연결된 이미지들을 대표해서 목(木)이라 일컫는다.

화는 '불(火)-염상(炎上)-여름-남쪽-적색-무성-열-더위-장(長)-예(禮)'의 계열을 따른다. 여름의 무더운 기온은 붉게 타오르는(염상炎上) 불과 태양이 내리쬐는 남방의 이지미를 닮았다. 여름의 초목은 더욱 성장해서 무성해진다. 불꽃놀이를 떠올려보자. 목이 발사된 폭죽의 속도감 있는 직진이라면 화는 정상에 오른 폭죽이 터지며 넓게 퍼지는 산포성과 닮았다. 성장의 속도는 목보다 늦지만 그 번성의 사이즈는 광대한 것이 화의 이미지다. 덕목으로는 예(禮)에 속한다. 지극한 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냉랭한 기운을 따뜻하고 활기 있게 만든다.

토는 '흙(土)-가색(혹은 매개)-환절기(혹은 장마철)-중앙-황색-성장의 멈춤-평(平)-습(濕)-화(化)-신(信)'으로 연결된다. 토는 목화와 금수를 매개하는 중간항이다. 봄여름과 가을겨울 사이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토가 한 계절을 점유한다면 일 년을 5계절로 나누게 되고, 그 기간은 대략 장마철을 끼고 있는 늦여름이 될 것이다. 늦여름의 무더위와 장마는 습하다. 습기는 무겁고 축축하다. 이때는 몸도 축축 늘어진다. 이런 습한 무게감이 화의 발목을 잡는다. 끝없이 팽창하려는 화의 상승과 발산의 기류에 습기의 무게를 더해 성장이 멈추도록 종용하고 양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다. 토를 매개로 해서 양의 상승이 음의 하향세로 전환된다. 그것이 자연이 원리다. 해가 중천으로 솟으면 저물기 시작한다. 양이 극에 이르면 음으로 돌아선다. 그런 점에서 토는 양과 음을 조화하는 기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습기는 만물 생성의 근원이다. 습기를 머금고 있는 흙은 초목의 씨앗을 잘 길러낸다. 이러한 성질을 가색(稼穡)이라고 한다.

심을 가, 거둘 색. 이름 그대로 심고 거두는 누렇고 습한 흙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토의 덕목인 신(信)은 믿음직한 넓은 땅과 비유된다. 씨앗을 심을 때 새 생명이 땅위를 뚫고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일어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것이 토의 신(信)이다.

금은 '쇠(혹은 바위)-종혁(從革)-가을-서쪽-백색-열매-서늘함(凉)-건조(燥)-수(收)-의(義)'의 기호들로 표상된다. 흔히 가을 기운을 숙살지기(肅殺之氣)로 표현한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찌는 듯한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가을이 오면 팽창했던 기운이 수렴되면서 열매는 단단해지고 다 익은 열매는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열매의 꼭지가 가을의 건조함으로 인해 마르면서 가지로부터 분리된다. 다 자란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듯이 나무는 성숙한 과실을 자신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이 애정 어린 단절의 힘을 숙살지기라 한다.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열매는 스스로를 나무로 성장시킬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와야만 새로운 신체로 거듭난다. 이는 쇠의 제련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평상시 쇠는 서늘하고 단단한 상태의 물질이지만 불이 가해지면 제련이 되면서 다른 형태로 변신한다. 이런 모습을 종혁(從革)이라 하며, 이는 숙살지기로 인한 존재의 변환과 통한다. '종혁(從革)'이란 말 그대로 '변혁을 따르다'라는 뜻이다. 변혁은 묵은 것들을 베어내면서 일어난다. 즉, 숙살지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변혁은 처리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긴다. 프랑스혁명에서처럼 혁명 이후에 새로운 독재가 집권을 하고, 도시가 파괴되는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종혁은 성숙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금의 또 다른 상징인 '서쪽'의 이미지와 통한다. 해질녘 서쪽으로 해는 '가을'과 함께 마무리, 성숙 등의 의미로 확장할 수 있다. 열매는 달지만 그 과정은 쓰다. 단단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금의 덕목인 의(義)는 의로움이다. 의(義)의 강인함과 냉정함과 결단력은 가을의 서늘함과 금의 정결함, 혁명성을 닮았다.

수는 '물(水)-윤하(潤下)-겨울-북쪽-흑색-씨앗-차가움(寒)-장(藏)-지(知)'로 연결된다. '겨울밤의 강'을 떠올려보자. 달도 보이지 않는 차디 찬 겨울밤, 강은 검은 빛을 띠고 유유하게 흐른다. 차가운 이미지는 북쪽과 겨울을 상징하며, 검은색은 가늠하기 어려운 미지의 분위기와 통한다. 요컨대 '수'는 겨울밤의 강처럼 차갑고 어두우며, 유동하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는 매우 음적인 기운을 상징한다. 이를 윤하(潤下)라 이르는데, 만물을 적시며 아래로 흐르는 물의 이미지를 떠올려도 좋다. 나무의 성장으로 비유하면 '수'는 씨앗에 해당한다. 열매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동물이 열매를 먹어야, 혹은 땅에 떨어진 열매를 미생물과 벌레가 먹고 나서야 비로소 씨앗은 땅에 정착해서 새로운 나무가 될 수 있다. 이 공생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는 생명력을 얻는다. 수의 덕목은 지(知)다. 지혜는 유연하고 깊이 스며드는 물을 닮았다. 지는 분별과 표상의 경계를 지우면서 심연으로 들어가게 하는 덕이다. (안도균, 『운명의 해석, 사주명리』, 북드라망, 85~89쪽)